

# 1997년 무역수지 전망과 대책

鄭 載 勳\*

## I. 머릿말

지난해 하반기 이래 지속되어온 경제적 어려움이 금년으로 이어지고 있고 파업 및 일부 대기업의 부도여파 등의 요인이 추가되면서 연초부터 무역수지적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년도 세계 경제여건이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요 교역대상국들의 교역신장세는 담보상태이며 국내요인을 보더라도 낙관하기 어려운 요소가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금년에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늘어만 가는 무역수지적자는 외채 증가와 경제활력 저하 등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업계·국민·정부 모두가 종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와 노력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때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먼저 금년도 대내외 수출입여건을 살펴보고 금년도 무역수지에 대한 전망과 함께 무역수지적자 축소방

안을 강구해 보기로 한다.

## II. 대내외 수출입여건

### 1. 수출여건

세계 경제 및 교역의 신장세가 전반적으로는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주력시장의 경제성장률 및 교역신장세는 현상유지 또는 둔화될 전망이다.

IMF는 금년도 세계경제성장률이 작년의 3.8%보다 높은 4.3%로 예상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성장률은 현상유지나 저하되고 있고 이들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점유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원화 및 엔화 환율이 동반상승하고 있지만 1995년 8월 이후 엔화의 원화에 비해 빠른 속도의 절하는 우리 수출상품의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변동추이 비교(1996.1.31 기준)

(“+”는 절상, “-”는 절하)

	원/달러		엔/달러		원/100엔	
	기준	변동	기준	변동	기준	변동
○ 1995년 7월말 대비(엔저시작)	756.50	-12.2	88.20	-27.7	856.74	+21.4
○ 1995년말 대비	774.70	-10.1	102.88	-15.7	749.23	+6.2
○ 1996년 5월말 대비(원절하시작)	787.90	-8.5	107.71	-11.7	731.74	+3.7
○ 1996년말 대비	843.20	-2.1	116.20	-4.8	726.51	+3.0
* 1997년 1월말 환율	861.30	-	122.05	-	705.69	-

\* 通商産業部 貿易政策課 書記官

국내 산업환경도 임금·금리·지가 등 생산요소비용이 경쟁국보다 크게 높아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임금은 1987년부터 매년 10% 이상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여 절대임금수준도 1인당 GNP가 우리보다 높은 대만을 상회하고 있으며 일부 산업에서는 선진국과의 임금격차도 크게 축소되었다.

경쟁국에 비하여 높은 금리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우대금리는 9% 수준으로 과거보다 낮아졌으나 일본의 2.8%나 대만의 7.9% 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에 더하여 높은 차입의존도로 인해 금융비용 부담 또한 이들 경쟁국가보다 1.5~2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공장용지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용지부족으로 인한 높은 공장용지가격으로 공장입지확보에 대한 애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 산업기술수준이 아직도 선진국의 45~58%에 그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이 기술개발·생산성향상보다는 주로 설비확장을 위한 투자에만 주력함으로써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금년에도 우리 산업계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주요국과의 경쟁력 요소비교)

	한국	일본	미국	대만
· 실질임금수준 (86년 대비 95년, 배)	2.2	1.1	0.95	1.7
· 제조업임금(94년, \$)	15,271	37,618	24,750	12,044
· 1인당 GNP(94년, \$)	8,508	34,630	25,860	11,456
· 우대금리(95년 평균, %)	9.0	2.8	8.5	7.9
· 금융비용/매출액 (90~95년 평균, %)	5.6	1.6	1.8	1.7
· 공장용지가격(천원/평)	554	430	318	-

## 2. 수입여건

경제성장과 설비투자 둔화, 국제원자재가격의 안정세는 수입수요의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6%대의 성장유지를 위한 수입유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국제원유가격의 상승, 도시가스 보급가구수 증가 등으로 에너지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며 국내소비성향에 비추어 고급소비재 수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소비재 수입증가율)

(단위: 100만달러, %)

	1994	1995	1996년 1~11월
-소비재 전체	10,835( 24.3)	13,807( 27.4)	15,205(20.5)
· 승용차(3,000cc)	16(188.9)	64(311.9)	199(91.9)
· 위스키	76( 68.4)	122( 60.1)	167(50.6)
· 화장품	152( 47.3)	233( 52.7)	316(50.2)

주: ( )내는 전년동기비 증가율

## III. 1997년 무역수지 전망

국내 각 분야별로 업계의 의견, 대내외 수출입여건 및 추세치를 감안하여 분석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무역수지적자 규모는 작년에 버금가는 수준인 190억달러 내외로 전망되지만, 다각적인 수출촉진 및 수입안정화 등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수립·추진하여 140억달러 내외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금년도 1/4분기는 전년도 동기에 비해 반도체가격 하락으로 인한 상대적인 수출부진과 원유도입단가 상승 및 원유도입물량 증대로 인한 에너지수입의 증가로 추가적인 무역적자 확대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연초에 1/4분기중 무역수지적자 규모를 74억달러선으로 전망해 보았으나 1월 중순까지 계속된

(주요기관별 1997년도 수출입 전망)

(단위: 억달러)

		수 출		수 입		무역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통상산업부	추세치	1,400	7.8	1,590	5.9	△190
	수정	1,420	9.4	1,560	3.9	△140
무역협회		1,420	9.4	1,600	6.5	△180
산업연구원		1,428	10.0	1,603	6.7	△175
한국은행		1,420	9.4	1,575	4.9	△155

파업으로 인해 수출차질액이 늘어났고 일부 대기업의 부도여파로 기업경영여건이 다소 위축됨에 따라 1/4분기중 무역수지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IV. 무역수지 개선대책

무역수지적자는 1994년 63억달러, 1995년 100억달러, 1996년 204억달러로 최근 매년 확대되어 왔고 1996년도 경상수지적자는 추계에 의하면 230억달러 수준이며 우리나라 외채규모는 이미 1,000억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금년 1월중 수출은 9,180백만달러로 전년동월비 8.2%가 감소한 반면, 수입은 12,592백만달러로 4.5%가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는 전년동기보다 1,352백만달러가 확대된 3,484백만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무역수지의 획기적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전국민과 업계, 정부가 인식과 자세를 과감히 전환하고 한마음으로 혼신의 대응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라고 하겠다.

먼저 정부는 금년도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다각적인 수출촉진 및 수입안정화시책의 추진 등 실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

이다.

이를 위해 첫째, 수출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신속·과감한 지원시책을 발굴·시행해 나갈 것이다.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대폭 확충하고 해외마케팅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지원시 우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간 통상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둘째, 수입합리화대책을 마련하고 과시적 소비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국산자본재 및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폐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에 대한 가격 및 품질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음성·블로소득자에 대한 세정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밖에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식품유통기한 및 원산지표시제도 등 수입관련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과감한 에너지절감 노력을 통해 에너지수입을 줄여 나갈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고통이 따르겠지만 에너지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에너지소비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솔선수범과 집단에너지 보급확대 등으로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등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 실천 등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만의 대응만으로 국내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

문에 정부는 물론 가계·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을 강구하는 범국가적 총력체제 구축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계는 근검·절약하는 생활자세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소비, 음식물낭비 축소와 자원 재활용 확대 등 주위의 작은 것부터 낭비적인 요소를 스스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은 노·사 화합과 단결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개척노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통상산업부는 이와같이 경제주체 모두의 참여하에 무역수지적자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1단계로 300대 과제를 발굴하여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는 「무역수지 개선 100대 과제」, 「산업경쟁력 10% 높이기 150대 과제」, 「에너지 절감 50대 과제」 외에도 앞으로 추가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무역수지 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무역수지 개선대책의 성과가 단기간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시책의 추진상황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감으로써 금년도 무역수지적자 규모를 작년보다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

## V. 맺는말

이제 종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 모든 나라·모든 기업과 모든 시장·모든 상품을 놓고 모든 수단·모든 방법을 통해 경쟁해야 하는 “무한경쟁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게 우리 경제의 개방화와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엔화약세의 지속, 반도체 시장의 부진, 경쟁국보다 높은 생산요소 비용, 산업기술력의 취약 등으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단기간내에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성장률도 6% 이내로 낮아질 전망이다. 산업계·국민·정부 모두가 무역수지적자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의식개혁과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하겠다.

우리 경제가 무역수지적자 확대, 외채 증가 및 경제활력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자질과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무역수지적자의 획기적 감축과 산업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그리고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에 모든 경제주체가 한마음이 되어 동참한다면 우리 경제는 70년대의 오일쇼크 때와 같이 오늘의 “위기”도 질적 비약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 도로에는 우리나라 타이어